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론 태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드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핑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교문

매리온 디 햅스  
로버트 디 헤일즈  
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프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벗 1978

차례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기도 : 모든 사람의 손에  
    취어진 선교 기구 ---- 던 엘 라슨 장로 ----- 4  
질 의 응답 ----- 7  
반에서의 창의성 ----- 로로이 바니 ----- 10  
키가 작은 벤 할아버지 ---- 얼 스토우웰 ----- 13  
지역 지도자 메시지 ----- 하 근수 서울 선교부장 ----- 17  
지역 소식 ----- 18  
바다물이 왜 짭까요? ----- 21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 24  
코리의 확인 ----- 엘튼 린쇼튼 ----- 26  
친척에게 복음을 전한  
    꼬마 선교사 ----- 페기밀즈 ----- 28  
지역 소식 ----- 29  
자유 의지냐? 영감이냐? --- 브르스 알 맥롱키 장로 --- 31  
물론 일지 ----- 39  
가정 생산과 비축에 대하여 가장  
    빈번히 문의 되는 질문 ----- 43  
영적인 기근 ----- 윌리엄 지 다이어 장로표 3

통 권 : 제154호, 제14권 제5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8년 5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와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8년  
제14권 제5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권권 소주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눅 6 : 35-36)

다음의 간절한 말은 구세주의 끝 없는 사랑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강도가 그리스도에게 한 마지막 말은 이러하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으로 강도를 용서하셨다. (로버트 브라우닝, 바들베르의 인용집, 제13판, 1966년, 573-6페이지.)

예수께서 강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분명치 않으나 그는 다음과 같은 친절한 말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 : 43)

그를 못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이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 34)

바울은 에베소인에게 보내는 서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 : 1-3, 29, 31-32)

야고보는 일반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약 1 : 19)

그런 다음 그는 성내어 말하면서도 경건한 체하는 사람을 혀에 자갈을 채워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 1 : 26, 3 : 2)

이와 같이 온 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은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큰 투쟁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혀는 비록 몸의 작은 일부이나 매우 효력이 크며 결코 닳아 없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말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의 입에 재갈을 먹임으로써 “온 몸을 거거하며”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무서운 광풍

#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이 메시지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자신의 혀를 다스려 상대방에게 친절한 말을 함으로써 이사야의 다음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

루자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이사야 63:7)

“어둔 구름 빛 가리운 곳  
사람으로 밝게 빛내세”(찬송가 193장)





에 밀리는 큰 배를 쉽게 운전하듯이 몸의 작은 지체인 혀로 큰 일을 자랑하고 큰 불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나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 3: 2-8 참조)

이미 거의 이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한 이 말씀에 대항하는 악은 우리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러한 악은 초기 성도의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일성도의 생활에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바울과 야고보의 시대 훨씬 이전에도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와 똑같은 교리를 설파하고 같은 충고의 말을 주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량한 혀는 곧 생명 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잠언 15: 1-2, 4; 31: 10, 26)

미대륙에서 베냐민 왕은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죄의 주인이요 우리 선조들이 말

씀하신 악령인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모든 의의 적이다.”(모 4: 14)

말일에 이 교회가 조직되기 1여 년 전에 주님은 선교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이 사업을 위한 자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신앙, 덕행, 지식, 절재, 인내, 형제애, 경건, 자비,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4: 6) 이같은 유덕한 성품이 선교 사업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후에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것을 신권의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교성 121: 41-42)

“분별력 있는 말은 웅변보다 나으며, 상대방에게 수궁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훌륭한 말을 논리 정연하게 늘어 놓는 것보다 낫다.”(바드레르의 인용문집, 제13판, 1955, 121-5 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당시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혀는 제어하기 어려운 지체”라고 말하면서 이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하찮은 일에 혀를 놀리지 말지니라. 사소한 험담으로 세상에 화근을 불러일으키느니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5: 20)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서로에게 친절할 말을 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친절 하심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

**문**호는 폐쇄되고 번방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수많은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문호가 개방된 나라에 들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나,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되는 나라에는 아직 회복된 교회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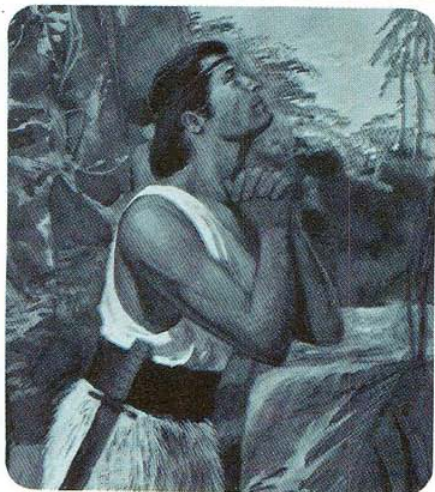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땅 위의 온 나라에” 메시지를 전파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 권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잠겨진 문을 여는 방법을 발견하는 일에는 외교상의 문제와 교회 지도자와 회원의 신앙이 요구됩니

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때 주께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입니다”(엔사인, 1974년 10월호, 7페이지)

교회는 그러한 문을 거대한 망치로 깨뜨려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대표자는 서서히 신중하게 행동하여 결코 방심하지 않고 조심성 있게 나라의 지도자에게 교회가 그들 백성에게 참된 이익이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열이 아니라 협동의 정신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과 물론 선교사들은 그 나라의 문화를 파괴하는 것

## 기도 : 모든 사람에게 쥐어진 선교 기구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을 강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문화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이 헌신적인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킴벌 대관장은 다른 총관리 역원과 함께 “기도 캠페인”을 제창하시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나라의 문을 열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선교사들이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엔사인, 1975년 10월호, 70페이지)

기도가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 기도로 혹은 개인 기도로 혹은 모임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하여 이 땅에 의의 목적을 가져 오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힘은 파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경에는 굳게 잠긴 문을 연 기도의 능력에 관한 간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리하이의 자손이 처음으로 나누어지면서 의로운 니파이 인들은 형제 레이먼들을 개심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야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레이먼들을 가르쳐 다시 저들이 진리를 알게 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나...모두 헛되게 되었고”(야 7:24)

이노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니파이 백성들이 열심으로 레이먼들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길로 돌이키려 하였음을 기록하였도다. 그러나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어...”(이노 20절) 이와 같은 경험의 오랜 역사—두 민족

사이의 전쟁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는 니파이인으로 하여금 레이먼인에게 복음을 가르치려는 시도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했으며,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그들의 사명을 계획하였을 때 “우리의 형제...들이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엘 26:23)

그러나 압몬과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신앙을 과거의 경험에 기초를 두지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과업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엘 17:3) 자신을 준비한 다음에 성공하리라는 완전한 신앙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킴벌 대관장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모로나이가 이들 선교사들의 놀라운 성과를 돌아 보면서 그는 그들의 성공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보라 레이먼들에게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도 압몬과 그 형제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이더 12:15) 물론도 니파이와 리하이의 선교 사업, 모사이아의 아들들을 따라 같은 여행지를 여행하여 거의 모든 레이먼 국가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힐라멘의 아들들의 선교 사업에서 거의 같은 점을 관찰하였습니다. (힐 5:50-52 참조)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니파이와 리하이가 레이먼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니파이와 리하이의 신앙으로써요,”(이더 12:14)

이와 같이 볼 때, 주님은 그의 의로운 자녀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의 사업을 성취시키십니다. 이 원리는 일차 방정식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앙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며 주님의 사랑이 의로써 신앙을 행사할 때 어떠한 기적적인 힘이 나타나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물문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는 예언자 이노스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복지를 위하여 주님께 나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간구의 응답으로 이노스는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노스는 또 다시 간구하였는데, 이번에는 가장 주님의 축복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의 형제인 레이맨인”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신앙이 지극하매 이제 내가 너의 “원대로 네게 이루리라……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들도 이를 내게 구하였나니 저들의 신앙대로 저들의 구한 바가 성취되리라.”(이노 11-12, 18절)

교리와 성약은 이노스의 계시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물문경의 처음 116 페이지가 분실된 후 잠시 동안 금판을 주께서 취하여 가셨습니다. 금판을 다시 돌려 주시면서 주님은 이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보라, 이 기록의 나머지 부분의 모두는 나의 거룩한 예언자와 또한 나의 제자들이 이 백성에게 나타내기를 기도로 열망하던 나의 복음의 모든 부분이 실려 있느니라.

“또한 내가 저들에게 이르기를 기도 가운데 보인 신앙에 따라 저들에게 허락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하도다. 저들의 신앙은 이러하였나니 곧 저들의 시대에 전파하라고 준

나의 복음이 저희 동포 레이맨과 저희의 불화로 말미암아 레이맨인이 된 모든 사람에게도 전해져야만 된다는 것이 었더라.

“또한 이것 뿐이 아니니, 다른 국민이 이 땅을 소유하는 일이 있게 되면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기도 가운데 보인 저들의 신앙이 었더라.

“이같이 저들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믿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기도으로써 이 땅 위에 축복을 남겼느니라.”(교리와 성약 10 : 46-50)

물문경에서의 이노스와 다른 능력 있는 예언자들은 “문을 여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형제에게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의 모든 상속인에게까지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해 주었습니다.

경전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노스, 모사이야의 아들들, 힐라만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킴블 대관장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을 열 수 없겠습니까?

말일성도가 선교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 항상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음의 메시지에서부터 단절된 아버지의 수많은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노스의 열의와 열망으로써 우리로부터 단절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신앙으로 간절히 구할 때 문은 열릴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라도 성취될 것입니다. \*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제이 머레이 러슨  
교회 선교 본부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선교사가 선교 사업을 위한 열쇠를 받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장로로 성임될 때입니까? 선교사로 성별될 때입니까? 아니면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입니까?

**교**회 대관장으로부터 선교사의 부름을 받는 것은 그 임무에 대한 열쇠를 받을 수 있는 허락을 얻는 것이다. 선교사로 성별받게 되면 그는 실제로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됩니다.

열쇠란 “하나님과 교통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고, 회개와 죄사 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며 권능이다.”(조셉 에

프 스미스, 복음 교리 [메저렛 출판사, 1939] 142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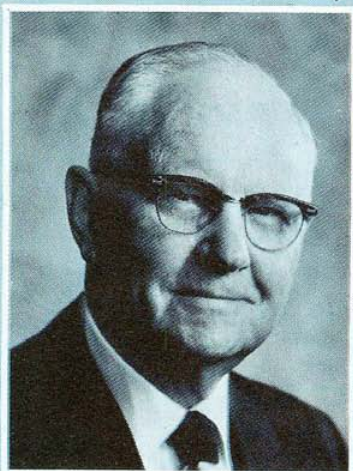
주님은 교리와 성약 42편 11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권능입니다.” 신권의 직분에 성임된 모든 사람은 그에게 위임된 이 권능을 갖고 있다. 이 권능으로 수행되는 모든 일은 올바른 시간과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지지하는 권능이 신권의 열쇠입니다. 열쇠의 충만함을 소유하는 사람은 일대에 단 한 사람 뿐이며, 그는 곧 예언자요 교회 재관장입니다.” (복음 교리, 136페이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왕국의 모든 열쇠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왕국의 모든 열쇠는 그에게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즉 교회)을 다스리고 그 왕국의 모든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권능과 권리와 능력을 준다. (복음 교리, 136페이지) 교회 대관장은 모든 열쇠 중 약간을 스테이크 부장이나 선교부장에게 위임하며, 그들은 대관장을 대신하여 선교사를 성별할 때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열쇠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십이사도 평의회

“신권이 병을 고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의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인**간의 유익과 인도와 축복을 위한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과학적 지식이나 다른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지식을 주셨습니다. 니파이의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우

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나이 25 : 23)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신권의 권능으로 병자나 고통받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권의 능력으로 인하여 너희가 병고침을 받으리라.” 의사들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술을 습득했다면, 그들이 병고치는데 필요한 요구 조건의 일부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일까요?

의학은 전체적인 계획과 병고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고리의 역할을 해 줍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불치의 병이던 것이 치료 가능한 병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으로 강건해진 고통받던 몸은 그 자체로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여러 가지의 중요한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체는 여러 가지 부분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부분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좋은 건강과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일생 동안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당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때마다 의학이 제공해 주는 의술의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하여 토론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율법인 지혜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계시(교성 89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에 좋지 않은 물질과 인간의 몸에 의로운 물질에 대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육류는 과식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자연법을 지킬 때 우리는 건강을 약속 받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법률대로 생활한다면 의약품의 사용을 받아 들이고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 유익을 얻을 수는 없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충실한 신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대신하여 기적을 낳게 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어 믿기는 하나 고침을 받을 신앙이 없을 때에는 약초와 부드러운 음식을 주어 따 뜻이 간호하며...

“또 교회의 장로 들 또는 그 이상을 불러 기도하게 하며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안수하게 할지니라...

“...나를 믿는 신앙이 있어 나올 줄로 믿고 또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42 : 43, 44, 48)

다음의 몇 가지 예는 의사와 신권의 병 고치는 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개 월된 의사의 아들이 중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치료하는 동안 여러 명의 의사와 상의하여 보았으나 일시적인 영향을 줄 뿐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아기의 체온은 섭씨 40도나 되었고 가족은 모두 아기가 회복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일연의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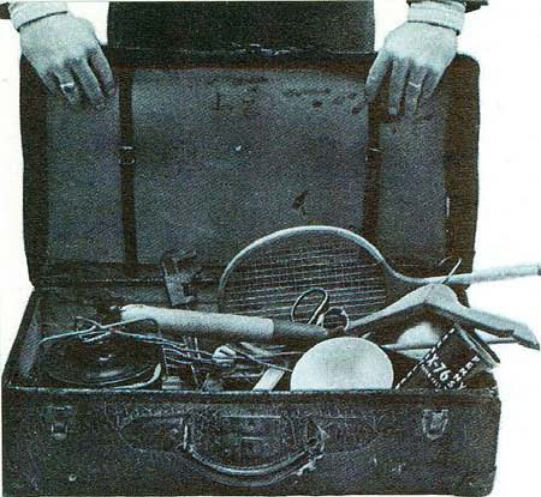
에 약속도 없었던 감독님과 그의 두 보좌가 이 가족을 방문하러 찾아 왔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그들은 아기를 축복하였고 축복이 끝 나자마자 가족의 친구였던 인턴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와 “아기에게 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인턴은 자신의 혈액을 제공 하였습니다. 곧 그에게서 피를 뽑아 아기에게 수술하였습니다. 아기의 체온은 40도에서 정상 체온으로 내려갔고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정상 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의학적인 치료가 근본적으로 실패한 경우입니다. 의약품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으로는 아기의 생명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나타나 병자 축복이 있는 후에 앞서 시도되지 않았던 의학적인 치료를 부가함으로써 아기의 생명이 소생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장성하여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심장염으로 고통 받았던 사람의 예입니다. 새벽 두 시 경, 그의 육체를 좀먹어 들어 가는 병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때 총관리 역원이 방에 와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즉시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그의 생명은 소생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의료 기술과 신권의 축복은 상호보완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기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반에서의 창의성

로로이 바니

**매**주 자신이 가르치는 반에서 영적인 학습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이 극히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창의성이란 다만 미술가나 조각가나 작가에게만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다.

교수법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란 공과를 좀더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의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 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달란트의 비유가 가르치는 기본 되는 교훈을 잊고 있다. 이 비유에서, 아무리 작은 재능일지라도 그것을 보전시키려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가 이미 갖고 있는 재능마저도 잃게 된다는 것

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교사에게는 누구에게나 작은 창의력 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성공적이고 잘 계획된 공과를 전개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이 귀중한 재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창의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실히 활용할 때에는 반에 학습의 풀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꽃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일제로 알빈 형제를 들 수 있다. 그는 갓 대학을 나온 젊은이였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무슨 일이나 낙천적인 사람이었으며, 어떠한 일에도 지 걱정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사실 그는 그 마을에 이름난 익살꾼이었다. 그가 제일 처음으로 가르치도록 지명을 받아 첫번째 공과를 가르치는 날 주일 학교 회장단이 그의 교수법에 대하여 몹시 걱정을 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가 반을 회극 무대로 생각하여 귀중한 분반 공과 시간을 웃음으로 허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공과 교재를 공부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개념을 가르치도록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빈 형제가 두 개의 큰 가방을 끌듯이 들고 첫 공과 시간에 임하였을 때 주일학교 회장단의 두려움은 적중할 듯 하였다. 과거의 예로 보아 그가죽 가방 안에는 구겨진 신문지로부터 살아 있는 뱀에 이르는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알빈 형제는 반에 책상을 갖다 놓았다.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책상은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으로 가득 찼다. 그 중에는 가까운 쓰레기통에서 최근에 줏은 듯한 것도 있었다.

기도회와 주일학교 개회 순서가 끝난 후 주일학교 회장단의 한 사람이 알빈 형제를 반원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함께 반으로 들어 갔다. 개회 기도와 알빈 형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끝나자, 알빈 형제는 반원 앞에 섰다. 알빈 형제는 어 급니가 보일 정도로 크게 웃어 보였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반의 어느 누구도 들어 보지 못하였던 재미있고 반원을 완전히 열중시키는 공과를 전개하였다. 그는 주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각 주제는 알빈 형제가 가방에 넣어 갖고 온 보조 자료로 강화되었다.

그는 오래 된 자 하나를 높이 들어올렸다. 너무 오래되고 많은 사람의 손에 닳아져서 눈금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자였다. 반원이 모두 그 자를 바라보자, 그는 이렇게 물었다. “기도의 영향을 여러분은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된 자를 눈으로 봄으로써 박자가 가해진 반원들은 가장 흥미롭고 열기면 토론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보통 때는 토론에 참여하기는 커녕 매주 반에 나와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였던 반원들까지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게 되었다. 공과 교재를 산 후로 그때까지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았던 반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옮겨 놓고자 단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공과 교재를 들여다 보았다.

그후 계속되는 공과에서 알빈 형제는 더 많은 미소를 지었으며, 훌륭한 공과를 가르쳤다. 첫번째 공과에서는 그다지 큰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반원들은 시간이 갈 수록 공과가 좋아졌다는 의견에 일치하였다.

그러면, 알빈 형제가 성공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가 재미있는 사람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 아무도 그

가 가방 속에 무엇을 들고 반에 들어올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었는가? 알빈 형제의 성공은 개념을 잘 적용시켰기 때문이었다. 우선 그의 공과는 참으로 창의적이었다. 어떠한 주제를 소개하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개하여 반원이 모두 열의를 갖고 주제에 응하게 만들었다. 알빈 형제는 항상 열의 있게 공과를 가르쳤으며, 반원도 그의 이같은 열의에 감동되어 그들도 열의 있게 수업에 임했다. 이와 같은 반원의 반응으로 또다시 알빈 형제는 힘을 입어 더욱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자꾸만 되풀이 되어 자신의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에서 행할 수 있는 창의력이란 어떠한 것들일까? 특히 여러분 자신이 그다지 창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첫째되는 요건은 물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많은 교사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전개해 왔던 구태의연한 교수법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그 방법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거나 부여해 주지 않거나 막론하고 매주 그대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떤 교사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가 혹시 실수라도 하게 되면 웃음거리만 될 것을 두려워 하여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지식의 샘을 갖고 있는 유능한 재원으로 여겨, 누구든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자신의 지식의 산물을 언제라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은 창의력으로 말미암아 공연히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할 난처한 입



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그들의 가장 유능한 교사는 그들이 답을 모를 때 결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교사는 반원이 교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말일성도 학생은 상대방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반원에게 반문할 때, 많은 반원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교회의 공과반은 복잡한 팀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지식과 구원이다.

반원은 교사가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익을 얻고자 한다. 이같은 이유로 반원은 공과와 반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약간의 유도어가 형식의 장벽을 깨뜨려 주고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경우가 있다. 긴장된 반원은 교화를 목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기 보다는 논쟁을 위하여 의견을 내세우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공과를 시작하기 전의 간단한 이야기나 우수한 이야기나 단순한 밝은 미소는 반원에게는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반원으로 하여금 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반응을 잘 나타내게 해 주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준다. 이와 같은 것을 반에 적용시킬 때, 창의적인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창의성을 발휘하라. 미소를 지어 보이고 긴장감을 완화시켜라. 교재의 공과를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시각 보조 자료를 사용한다. 공과 내용을 충분히 익혀서 교재가 필요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색인 카드에 간단히 공과의 요점만을 적어 오는 것으로 충분히 공과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예기치 않은 질문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하여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창의력을 발휘한 공과라 하여 반드시 완전히 성공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성이 반원으로 하여금 공과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고 깊이 생각하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창의성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공과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공과의 주요 개념을 가장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를 자신에게 질문하고 기도모썸 구하여야 한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공과 주제에 관하여 생각하게 할 것인가?

토론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으면, 그 토론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시각 보조 자료를 사용하여 토론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어떠한 시각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사교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토론을 시작하려면 (역할 담당극이나 진문가의 간단한 보고 등), 이 부분을 공과의 어느 부분에 도입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반원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여러분의 공과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알빈 형제와 같이 매주 두 개의 가방에 자료를 가득 갖고 올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과에 참여하고 보다 토론에 흥미를 느끼며, 진보다 더욱 교사의 가르침을 좋아 하도록 만들려면, 교사인 여러분은 공과를 준비할 때 창의성을 활용하여 열의의 불꽃을 튀겨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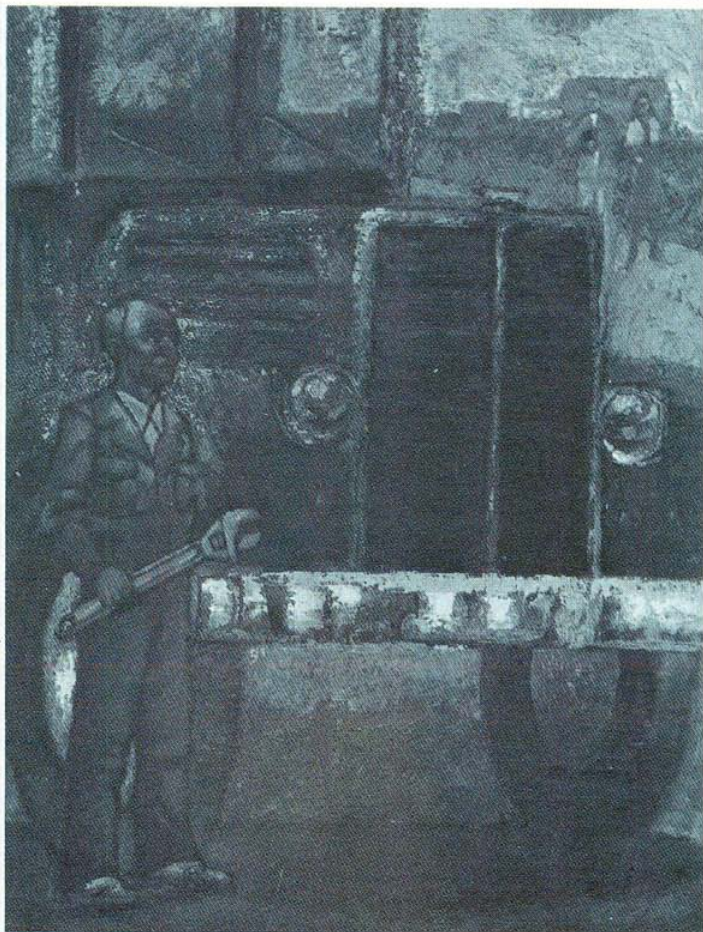
키가 작은 벤 할아버지가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교훈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도 어느새 여러 해가 지났다. 그것은 감독님의 전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형제님이 시군요? 다음 일요일 오후 8시에 자매님과 함께 감독실에서 만나 뵈었으면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전화가 걸려 오면 얼마나 마음이 떨리게 되는지를 감독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감독실에 앉자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몇몇 비활동 회원 가족을 방문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

## 키가 작은 벤 할아버지

얼 스토우웰





들이 실패한 경우라도 부부 팀이라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우리는 애써 미소로 입무를 받아들였다.

여러 차례의 자신과의 투쟁을 벌이면서 며칠을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의 거절을 당하자 우리의 열의는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이 특별한 집의 문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키가 작은 편인 나는 항상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 보려면 턱을 바짝 올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만은 문이 열렸을 때 고개를 숙이고 내려다 봐야 했다. 15피트도 되지 않는 작은 사람이 문 앞에 나와 있었다.

그는 마른 사람이었다. 호주머니에 나사못을 잔뜩 넣고 옷을 물에 흠뻑 적신 후에 몸무게를 재야 겨우 45킬로그램이 될까말까 할 정도였다.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끝은 체구와 생동력 있는 몸 동작으로 보아 이 노인을 굴복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작으나 깨툭는 듯한 양 눈의 미간은 시원스레 떨어져 있었다. 딱 다문 입은 양 귀를 잇는 듯하였고, 피부는 주름으로 거칠었다.

우리는 이웃이며 교회 회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사귀고 싶어서 찾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작은 거실로 안내하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거실에는 재떨이가 있었으며 가구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나의 아내의 불임성 있는 성품 때문에 우리는 곧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트럭 운전사라고 했다. 나는 조그마한 픽업정도까지 하고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커다란 덩치 트럭을 운전한다고 말했다.

“그런 트럭을 운전하려면 상당히 몸이 건강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노인장께서...”

그는 나의 말을 가로 막으며 말했다. “내 열 의자에 12인치 크리스털 렌치를 갖고 다닌다오.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왜 늙도록 은퇴하지 않는지 궁금하지요? 나는 72살이 넘어서 은퇴할 겁니다. 아직 72살은 안되었거든요.” 그는 트럭 소유자로서 큰 건설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는 그 회사에 최상위로 고용되어 있다고 말했다.

여러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키가 작은 벤씨와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트럭 호퍼에 매달려 자기의 키만큼이나 되는 렌치의 끝에서 뛰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었다. 우리가 다가갔을 때 넷트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려 와서 큰 렌치를 트럭 좌석에 넣고는 이마를 문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휴우! 난 해낼 수 있다는걸 알았어요, 저녁에 일을 마쳤을 때 자동 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새 것을 사다가 손을 봐야 했지요. 내일 정오 경에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못한 것을 보충하려면 부지런히 뛰어야 할 겁니다”

그날 밤 그는 몸치 지쳐 있는 듯하여서 우리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현관으로 다가가는 우리에게 벤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언제나 나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 신권회와 교회에 나오라는 등등의 이야기만 할 작정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부부는 더할나위 없이 기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모두 할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미 모두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이래저래서 말한다는 것은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가 이렇게 찾아 오는 것은 다만.....다만 할아버지가 저희 친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는 내 손을 굳게 쥐고 흔들었다.

그 주의 말경에 전화가 걸려왔다. “신권회 모임이 몇 시에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시간을 말해 주면서 모시러 가겠다고 말했다.

“아닐세. 나도 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나 스스로 가야지요”

나는 교회 밖에서 계신 그를 발견하였다. “내가 담배를 끊을 때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그는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도와 주시면 담배를 끊는 일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여덟 살부터 담배를 피워왔는데.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곧 키가 작은 벤 할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고, 거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체구가 작은 노인이었지만 그는 곧 친구가 되었으며, 장로 정년회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전화를 받았다. “형제님께 할 말이 있소” 그의 음성은 몹시 노한 듯하였다. “날더러 워드 교사를 하라는 거야. 난 못해요, 난 담배도 피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게다가 사람이 모자라서 보조 교사도 둘 수 없다는 거야. 어쩌면 좋을까요?”

나도 몸을 떨었다. 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또 다시 길을 잃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 쉬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할아버지, 저희들이 한 번이라도 할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자네들은 나에게 내가 자네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고 또 그렇게 느끼게 해 주었어요. 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저희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기억하도록 동기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단지 그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들과 때때로 함께 앉아 할아버지에게 귀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르더니, “할 수 없군. 하겠네.”라는 음성이 들려 왔다.

하루 해가 지면 나는 곧 잘 베 할아버지의 몇몇 친척이 살고 있는 거리로 차를 몰았다. 모두가 비활동 회원이었으며, 대부분이 비회원 남편이나 아내를 맞아 오랫동안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 철에 내가 보았던 수박 중에서는 가장 큰 수박을 나르고 있는 벤 할아버지를 보았다. 두 팔로 수박을 부둥켜 안고 무거운 듯이 발을 옮겨 놓고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세 구역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내가 그 걸음으로 차를 몰고 가자 그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그것을 말하였다.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생각나더군요. 그애들 아빠는 직장 일로 나가 있고, 금년에는 수박이 귀하고 비싸서 아이들이 먹어 보지 못했을 것이 뻔한 일이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컷 먹이려고 상점에서 제일 큰 수박을 골라서 산 것이랍니다.”

그후 나는 어느 더운 여름 저녁 때 그가 큰 생일 카드를 들고 즐겁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후에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남자 형제들만 있어서 늘 관심 밖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카드를 부치지 않고 손에 들고 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몇 주 전에는 어떤 아이들이 인형의 팔을 빼어버렸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고 이 어린 소녀만 걱정하는 것 같더군. 나는 인형을 집에 갖고 와서, 삼지 그릇에서 오래된 후크를 꺼내서 인형 팔을 붙였지요. 잘 붙이긴 했는데 밤새도록 걸렸어요. 하지만 그 인형을 소녀에게 돌려 주었을 때 밤



새도록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내가 가기만 하면 인형을 갖고 내 앞에 앉아서는 내게 기대고 여자 좋아하질 않아요” 그의 음성은 약간 상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얼마 안되어 나는 흥분된 어조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가르친 꼬마 여자 아이가 칩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였다. 나는 기쁨을 금치 못하였으며, 내 아내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과거 5년 동안 이 가족들은 와드 교사나 방문 교사의 방문 이외에는 거의 교회와의 접촉을 갖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 3년 동안 벤 할아버지의 8차례의 방문은 항상 기대에 찬 것이었으며, 어린 소년의 칩레와 신권 승진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그와 같이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님이 내게 말해 준 대로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해야 할 바를 말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 가족을 위하여 영적인 식탁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으면 식탁에는 자리가 비게 될 것이고 따라서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와드 복음 교육이 가정 복음 교육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바는 벤 할아버지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었다.

벤 할아버지는 그의 네 가족 가운데 회오리 바람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 활동 회원이 거의 없었던 가족에서 갑자기 비활동 회원들은 벤 할아버지에 의해서 권고를 받게 되었다. 그는 손자와 접촉을 가져 그를 개종시켜 선교사로 내보냈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입학시켰다. 그곳에서 손자가 젊은 자매를 만나게 되었을 때 벤 할아버지는 가장 어려운 싸움을 겪어야 했다.

“그 아이들이 내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나

와 함께 신전에 갈 수 없다니, 형제님 나 좀 도와 줄 수 없겠습니까?”라고 그는 내게 물었다. 나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여러 차례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고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매우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는 결국 담배를 끊고 말았다. 우리가 신전의 모임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의 표정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어느 날 나와 아내가 사흘간의 휴가 여행에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벤 할아버지는 신권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감독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대답하였다. 병 문안을 가겠노라고 말하자 감독은 고개를 저으며, “심한 뇌일혈로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결코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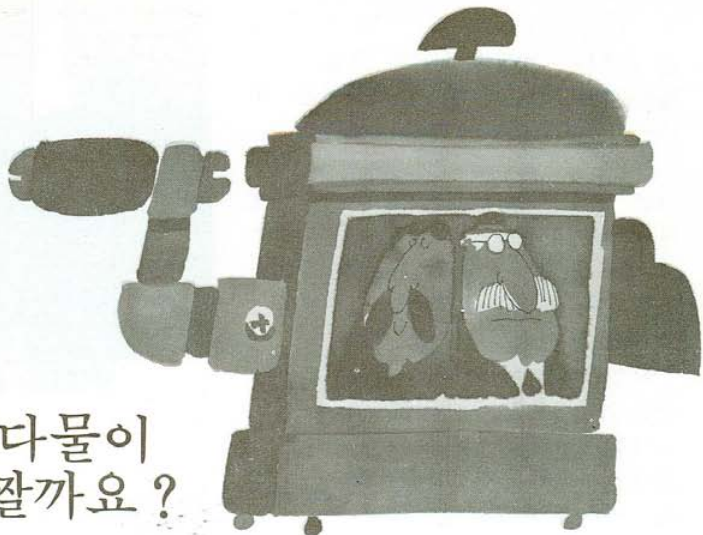
우리는 그분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 들어 결국 활동실의 문을 열고 급히 의자를 놓아야만 했다. 그가 가르쳤던 너댓 가족들도 그 중에 끼어 있었다.

비회원 남편 한 사람이 나를 어떤 이웃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람이 하도 졸라서 왔어요. 그 사람 말이 이분은 하루 일을 회생하더라도 장례식에 참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내 장례식에도 이 처럼 누군가가 이웃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 사람은 머리를 흔들며, “이분은 정말 굉장한 분이셨던 모양이에요”라고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게리, 이분은 정말 우리 가족이야.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참다운 의미에서 가족과 같은 분이셨어.” \*

일 스토우웰은 가정 복음 교사요 와드 신문의 편집자로서 치코 캘리포니아 스테이크의 파라다이스 제 2와드에 속해 있다.



## 바다물이 왜 짭까요?

옛날 어느 바닷가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으나 매우 가난하였고, 형은 마음씨가 나쁘고 인색한 사람이었으나 매우 부자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우의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형의 집을 찾았습니다. “형님, 제 아내와 제가 먹을 음식을 조금만 주십시오. 형의 집에는 식량이 풍부하니 추수 때에 형님 댁에서 일하여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형은 아우에게 조금도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이웃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험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이것 갖고 어서 썩 나가버려. 추수 때에 와서 일을 잘 해야 해!” 형은 성을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는 햄을 갖고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는 숲을 지나는 지름길을 택하여 발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급히 산길을 가는데 길은 점점 낮설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우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있을 때 아우는 얼마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찍는 도끼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끼 소리를 따라 가보니 거기에는 큰 집이 있었고 한 노인이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길 좀 물어봅시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도끼가 노인의 손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아우가 급히 뛰어가 도끼를 잡지 않았으면 노인의 발을 자를 뻔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좋은 사람이군요요.”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구해 주었으니 말일세. 자,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가게. 젊은이가 갖고 있는 햄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집 안에 있다네. 햄 대신으로 문밖에 있는 오래된 멧돌 하나를 가져 오게. 다른 것을 더 가져올 생각은 말게나. 그것을 가져 오면 내가 그 멧돌



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네. 그 멧들은 무엇이든지 다 갈 수 있는 거라네.

아우는 이상히 여기면서도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집안에는 여러 명의 난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햄 냄새를 맡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햄 대신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우는 “문 뒤에 있는 오래된 멧돌만 갖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를 더 갖고 가라고 청했지만 아우는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난쟁이들은 햄과 오래된 멧돌과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인은 젊은이가 멧돌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곧 그에게 멧돌을 돌리는 방법과 그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우는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곧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우는 멧돌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돌아라 멧돌아! 훌륭한 저녁을 지어다오”라고 그가 말하자, 놀랍게도 멧돌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우 부부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던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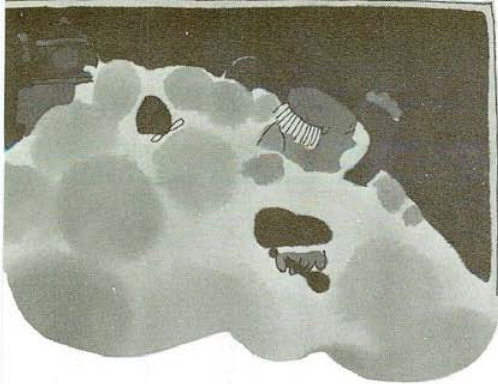
그후로 아우는 그와 아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즉 음식, 옷, 등등을 멧돌에게 만들어 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이웃을 모두 청해다가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형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우가 부자가 된 것을 본 형은 질투가 났습니다. “너 이 많은 재산을 어디에서 얻었느냐?”라고 형이 물었습니다.

아우가 멧돌에 대하여 설명하자 형은 그 멧돌이 갖고 싶어졌습니다. 형은 아우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우는 형에게 멧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기 전에 아우는 아내와 자기가 여러 해 동안 살기에 충분한 물건을 멧돌에게 만들어 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멧돌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형은 이 새로운 보물을 아무도 못보게 하려고 자기 혼자 있게 될 때를 안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는 멧돌에서 무엇이고 나온다는 것에만 정신을 쓴 나머지 멧돌을 그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아우의 설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게 되자 형은 곧 멧돌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라 멧돌아!





오우트밀 죽을 만들거라! 맛있는 오우트밀 죽이 먹고 싶단다.

“멧돌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공기 정도의 죽이 나왔습니다. 죽은 점점 쏟아져 나와 방울 가득 채웠고 마당으로까지 넘쳤습니다. “그쳐! 그쳐! 그쳐!” 아무리 소리를 질렀으나 멧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은 아우에게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죽에서 잔잔히 헤쳐 나와 아우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멧돌 가져가! 어서 가져 가거라! 죽이 더 나왔다가는 우리는 모두 숨이 막혀 버릴 거야! 어서 가져 가! 멧돌만 가져 간다면 내 아무 것이나 네게 주겠다.”

아우는 멧돌을 다시 가져다가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멧돌을 갖고 사용하였습니다. 곧 그는 바닷가의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향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상한 멧돌을 보러 그의 집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선장 한 사람이 “이 멧돌에서 소금도 나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소금을 배에 싣고 멀리 항해하여 파는 소금 장수입니다. 이 멧돌을 갖고

소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할 수 있고 말고요.” 아우는 대답했습니다.

친 양을 줄테니 멧돌을 나에게 파십시오.” 선장이 말하였습니다.

“안됩니다. 이 좋은 멧돌과 이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아우는 결국 팔기로 하였습니다. 선장은 급히 멧돌을 갖고 배에 오르고는 깊은 바다 가운데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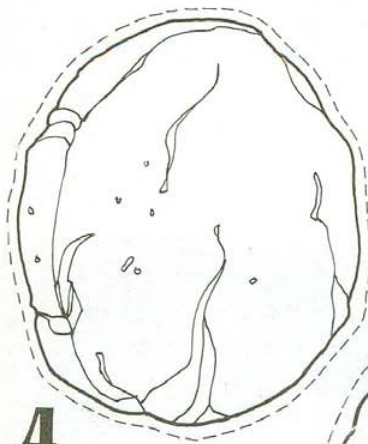
그는 배를 세우고는 멧돌을 내려 놓고 명령하였습니다. “돌아라 멧돌아! 소금아 나오거라. 빨리 빨리 돌아라!”

곧 멧돌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의 죽과 같이 이번에도 멧돌은 돌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배에 가득 찼습니다. 선장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나 계속 소금이 쏟아져 나와 결국 배는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배는 완전히 가라앉아 바다 밑 바닥까지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바다 밑에서는 소금이 멧돌에서 끝없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 “그는 살아 나셨느니라”

## 웅판 그림 해설

**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의 친구들은 그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 두기 위해 옮겼다.

**2**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그가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넣어 두었다.

**3** 무덤을 지키기 위해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막았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말씀을 상기시켰다.

**4**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할까 봐 두려워 병정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다.

**5**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는 동산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출로 알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를 부르셨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그 옆에서 계신 분이 예수인 줄 알았다. \*





# 코리의 확인

엘튼 린쇼튼 사진



**1** 코리가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게 되는 날 코리는 가족과 함께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2** 코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기에 대한 유아 축복이 끝나면 확인 의식이 집행될 것입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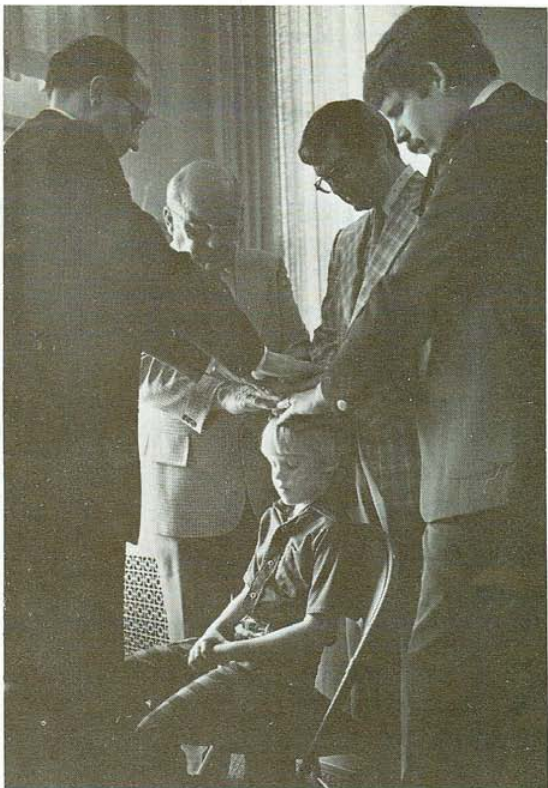
코리의 이름이 불리워지기 전에 코리는 아버지와 함께 회중 앞으로 나갔습니다. 코리는 의자에 앉았고 코리의 아버지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코리 주위에 둘러 섰습니다.

**4**



# 5

그들이 모두 코리의 머리에 손을 얹자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코리의 아버지는 코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고 그에게 성신의 은사와 축복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 6

기도가 끝나자 주위에 섰던 사람들은 코리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 친척에게 복음을 전한 꼬마 선교사

페기밀즈

교회 뉴스 기자

자네르 퍼셀이 제일 처음 더글라스 지부에서 회원들 앞에 서서 간증을 드렸던 때는 겨우 다섯 살이였습니다.

자네르는 복음을 사랑하였으며, 그녀의 어린 선교사적인 역할은 74세의 할아버지를 침례 받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윌포드 퍼셀 부부의 딸인 자네르는 윌리엄 보르독스 할아버지의 집에서 얼마 안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네르는 할아버지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 했으며, 그의 믿음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네르는 할아버지께 그녀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모범과 사랑으로 인하여 “윌리엄 할아버지”는 결국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네르가 7살이 되었을 때 자네르는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생겼

습니다. 할아버지가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자네르는 선교사들에게 할아버지를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평생 동안 파이프 담배를 피워 오셨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자네르의 권고로 그는 파이프 담배를 끊고 선교사와 공과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00년에 태어난 그는 지금까지 아무 교회에도 가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년 전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마는 은퇴할 때까지 농부로서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자네르의 8번째 생일이 다가올 때 윌리엄 할아버지는 침례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꼬마 선교사” 자네르는 이 매우 특별하고 선택된 개종자를 교회로 입교시키는 데 자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

## 광주 지방대회 개최

광주 지방부에서는 지난 2월 18일, 19일 양일간에 78년도 1/4분기 지방 대회를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 감리하에 가졌다.

18일 토요일은 주일학교 계간 역원회와 회원 활동 축진을 주제로 한 대회 역원회를 가졌다.

19일 일요일에 가진 본 대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를 주제로 열렸다.

마지막 연사인 한 인상 선교부장은 주제를 내용으로 영적인 말씀을 들려 주어 모든 참석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날 대회에는 330여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광주 지방 대회에서 말씀하시는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과 회중

## 새로운 신전 건립

지난 2월 3일 대관장단은 솔트레이크 카운티 남서부 사우스 조단에 새로운 신전을 건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조단리버 템플로 불리울 이 신전은 15에이커의 대지에 세워진다.

이 신전은 유타주에 세워지는 일곱번째의 신전이 된다.

현재 건축 중인 신전으로 브라질의 상파울로 신전, 일본의 동경 신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신전, 워싱턴의 시애틀 신전, 아메리칸 사모아 신전 등이 있다.

16개 신전 중 14개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 10개가 미국에 있고 나머지는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스위스에 있다.

현재 하와이 라이에 신전과 유타주 로잔 신전은 개축 중에 있으며 하와이 신전은 1878년 6월에 재헌납할 예정이다.

☆ ☆

한 방사선학적 연구”로 어린이 성장 발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한다.

이 형제는 그동안 교회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단 보좌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성부 형제

## 이성부 형제 박사 학위 획득

서울 서스테이크 제9와드 소속 이성부 형제가 지난 2월 27일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획득했다.

학위 논문 제목은 “유구 골구 출현에 관



## 맹인 양로원 방문

지난 2월 24일, 서울 스테이크 독신 성인 위원회는 충효 사상의 실천을 위한 봉사 활동으로 수락산 아래에 있는 맹인 양로원을 찾아가 78명이나 되는 맹인들의 침구를 세탁해 주었으며, 또 술과 담배가 인체와 사회에 끼치는 해로움에 관하여 토론을 했고 노래도 같이 부르며 하루를 지냈다.

이 봉사 대원들은 이들에게 비누, 타월, 양말, 치약 등 생활 필수품을 준비해 전달하였다.

주변 정리에 여념이 없는 청년들



맹인 양로원에서 맛깔을 경험하는 회원들

선물을 전하는 박일송 독신 성인회 회장



## 서울 스테이크 아론 신권 및 청년회 제 2 회 중창 대회

지난 3월 25일 서울 스테이크는 4 와드에서 스테이크 아론 신권 및 청년회 주최 제 2 회 중창 대회를 가졌다.

모두 7개 와드/지부가 참가하여 그동안 키워온 실력을 겨루었다.

이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5와드, 우수상을 잠실지부, 우등상을 상계지부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중창 대회에는 19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중창 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 자유 의지냐? 영감이냐?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최** 근에 나는 아내와 함께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말일에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영원한 복음의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수 많은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아내의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 토론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나요?”

즉시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생애에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1937년 10월 13일, 오전 11시,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무

릎을 꿇고 당신을 내 영원한 동반자로 맞았을 때였오”

“그 시험에는 합격했군요” 아내가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말일성도가 해야 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능에 의해 올바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언자 엘리야가 회복하신 권세와 권능으로 인봉된 후에, 모든 말일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맺은 성약대로 생활하여 현세 뿐만 아니라 영원히 결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언은 잘 인도 되기만 하면 모든 면, 적어도 모든 중요한 활동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영원한 결혼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고 있었을 때 우리는 자유 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즉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때 그에게도 같은 권세가 부여되었으며, 현재 우리도 그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감각과 판단력과 자유의지를 행사 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의 영을 구하며 계시와 영감의 영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합법적인 의식 집행자는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으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성신의 은사란 충실한 자에게 신회의 구성원인 성신의 끊임 없는 동행을 약속 받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명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감의 영 즉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 의지로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주는 과정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명제 사이에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전세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살펴 보셨으며 우리가 그의 면전에 거하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며 모든 가르침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때,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고 그의 면전을 떠나 한 때는 그에게서부터 받은 개인적인 권고가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살펴 보시고 계십니다.

세 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연구로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규정지어져야 할 실질적이고 건전한 결론을 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서 찾고자 합니다.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사례 연구 1 :** 율리버 카우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는 예언자의 일을 도운 서기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언자가 번역할 때 그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물론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카우드리 형제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역량이 상의 것을 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싶어서 예언자에게 출라했습니다. 예언자는 이 일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율리버 카우드리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언젠가 될 것을 믿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구하면 무엇에 관한 지식이든지 언젠가 될은 네 하나님



“그 시험에는  
합격했군요”하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요 구속주이신 주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참으로 분명하도다.” 그가 얻게 될 것은 “내 영의 나타냄으로써 이야기된 내 경전의 일부가 실려 있는 옛 기록인 조각문에 관한 ‘지식’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시면서 주님은 이 일과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상황에 해당되는 원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베게 와서 베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베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 보라” (교성 8 : 1-3)

올리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을 뻔한 것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방금 읽은 그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것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 번역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실로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신앙을 보이고, 기도의 응답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간구하였으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전혀 번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언자와 그는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주님께 엮어 보게 되었으며, 주님은 왜 그가 번역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

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베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교성 9 : 7)

신앙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으로 구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무엇이든지 행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 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결과란 물론경 번역일 수도 있고, 선택일 수도 있고, 직업 선택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수 많은 중요한 일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게 이르노니, 너는 베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구 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라면 나는 베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라면 그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는 거룩한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9 : 8-9)

여러분은 어떻게 아내를 택합니까? 브리검 영 대학교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나는 젊은이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영감을 느껴야 합니다. 계



시를 받아야지요. 금식하고 기도하여 주님이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한번도 주님께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를 간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주님께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나가서 내가 원하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맞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평가하고 재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100 퍼센트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완전하게 행하였다면 주님께 상의해야 했을 터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주님께 기도으로써 내가 내린 결정과 관련하여 그에게. 따른 지침과 인도를 구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좀더 완전하게 일을 처리 하였다면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도 주님께 상의해야 했을 테고, 내가 나의 자유 의지으로써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확신도 얻었어야 했을 터입니다.

### “내게 청함이 어찌이나?”

**사례 연구 2 :** 고대 기록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단지 야렛의 동생이라고만 불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료에 그의 이름이 모리엔쿠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야렛인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으로부터 약속된 미래룩으로 오기 시작할 때 그는 그들 민족에 필요한 지시와 영적인 인도를 주님께 구하였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건너야 할 바다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배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님은 배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야렛의 동생은 과거에 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므로 그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계사가 없어도 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은 약간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 사용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좀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 공기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야렛의 동생의 능력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였으므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이러이러하게 하면 공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된 야렛의 동생은 또 다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배 안에 빛이 없나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배 안에 있는 빛을 있게 하도록 내게 청함이 어찌이나?” (이더 2: 23)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와 같습니다. “왜 나에게 구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주님께서 조금 더 말씀하신 다음 질문의 요점을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너희가 깊은 바다에 빠져 삼켜질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더 2: 25) 다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모리엔쿠머야, 이것은 네 문제이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너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고 너는 행할 능력을 부여받았다.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야렛의 동생은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셸렘이라 하는 산에 올라 가서, “작은 돌 열 여섯 개를 끊어내니, 투명한 유리 같이 희고 깨끗하였다.” (이더 3: 1)라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렛의 동생은 열 여섯 개의 작고 투명한 돌을 (전부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록에는 “저가 이를 손에 받쳐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 갔다고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시여 이리이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묻지 않고 다만 영감을 받아 스스로의 판단력을 사용하여 결정한 다음 주님께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리엔 쿠머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 돌을 만지시어 이 돌로 암흑 중에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진정 이 돌이 우리가 마련한 배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 우리가 바다를 건느는 동안 우리에게 빛을 주리이다.”(이더 3:4)

주님은 야렛의 동생이 구하는 바대로 행하셨으며, 야렛의 동생이 주님의 손가락을 본 것은 바로 이 때였습니다. 그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는 그때까지의 어느 예언자가 받았던 계시보다 더욱 큰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때까지 밝혀졌던 것보다 더 많이 그의 성품과 인격에 대하여 밝혀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모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스스로 행하였고 주님께 상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 의지와 영감 사이에는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였다는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진리와 지식을 더 얻게 됩니다.

### “저들은 나와 의논하여야 할찌니”

사례 연구 3 : 교회사 초기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미주우리주의 특정한 곳으로 모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이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명령은 “관리 감독은 나와서 이리이러한 일을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에드워드 켈트리지에 관하여 말한 바와 같이 이 땅은 저가 정주할 땅이요, 저가 보좌관으로 임명한 자와 나의 창고를 관리하도록 내가 임명한 자가 거할 땅이니라.

“그러므로 저들은 나와 의논하는 대로 자기 가족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게 하라.”(교성 58:24-25)

주님은 시온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떠한 상황으로 모이는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이도록 명령받은 자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의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의논할 때 우리는 무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자녀들과 무엇에 대하여 의논할 때는 아이들을 불러들여 의논을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해야 할 바를 이야기하지 않고, “네 생각은 어떠한가? 너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의견을 나에게 말합니다.

그 문제에 관하여 나도 지혜와 판단이 서게 되면, 나의 의견을 말해 줍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울법으로 어떻게 통치하고 제어하며 지시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해 주시지마는 그와 의논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를 교회 관리 감독관에게 말씀하신 후,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스리는 원리를 주셨으며, 이 원리는 모든 상황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계시의 하나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법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무릇 법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중이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



“나는 너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고  
너는 행할 능력을  
부여 받았다.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 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루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 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치 못해 이를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교성 58 : 26-29)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일성도를 다스립니까?”

그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어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운영 방법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가 채택하여 사용해야 할 운영방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후에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려 그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행하는 모든 일을 주의 의논할지니”

지금 살펴본 것이 세 가지 사례 연구였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지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엘마라 하는 힘세고 위대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힐라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모범을 따른 거

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엘마는 힐라멜에게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나의 아들이야,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구하고”(엘 37 : 35-36) 만일 여러분이 물질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기도로써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기도문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사막한 가오메나 높은 산 꼭대기로 나아가 은실혈을 기울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밭에 나가 곡식을 뿌리고 채소를 재배하는 등 온갖 우리의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합당하도록 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뜻대로 하며 너의 생각하는 것도 주의 뜻을 따르게 해야 할지니, 너의 마음의 사람을 영원토록 주님께 돌리게 하라.”(엘 37 : 36) 다음 구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모든 일을 주의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엘 37 : 37)

올리버 카우드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는……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였…도다……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라.”(교성 9 : 7-8)

여러분은 아내를 원하십니까? 무엇이든



지 옳고 바른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능력과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을 사용하고,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린 다음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신에게서만 올 수 있는 고요하고 따뜻한 확신이 마음에 느껴지면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은 교회 회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재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피 주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엘 37 : 37)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려고 노력하며, 올바르게 건전한 결정을 내리고, 주님과 의논하여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여러분은 계시를 받은 것이며, 또한 영생의 위대한 상을 받아 마지막날에 들리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두 똑같지는 않습

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는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워싱턴 탄신일인 월요일에 나는 뒷뜰에 나가 통나무를 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나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바라는 대로 통나무를 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조금 있다가 동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뒷뜰에 나가서 형을 쪼 도와 주어야겠나보다. 형이 제대로 잘 하는지 살펴 보려구나.”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르스는 아무래도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한 모양이야.” 사실 나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현재 처한 곳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내 생애에 적용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늘 주님과 상의하고 그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처하건 복음은 나를 앞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주었으며 축복이 나에게 흘러 넘쳐 결국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나에게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 우리는 계시의 영을 지니고 있음

이제 충분히 이야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마가 하였을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엘 5:45) 그것이 그가 그들에게 사례 연구로 준 것이고 계시를 인용한 것이며, 그 후에 그는 자신의 간증을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와 같이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마칠 때 우리가 한 말이 옳은지를 알게 될 것이며, 사업의 신성과 진실성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포하는 교리와 우리가 설명하는 영원한 진리가 옳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음성이란 간증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과 이 교리에 대한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은 그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 진실한 것이며 주님의 영향력이 여기에 미치고 있다는 것에 비교할 만한 진리는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자 그대로의 성신의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 간증의 영,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 곧 하나님의 왕국에 있지 아니한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 스미스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십이사도에게 알리실 것을 제외하고는 요셉에게 아무 것도 밝혀 주지않았습니다. 아무리 미미한 성도라 할지라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9페이지)

우리는 계시의 영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영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방법과 절차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의논한 다음에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성령의 재가를 얻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재가가 곧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서도 우리의 자유 의지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굽히고, 그의 재가를 받도록 하여 우리의 생이 계시의 영의 방법으로 이끌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진대, 결과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란 이 생에서의 평화요 다음에 올 생에서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인 것입니다. \*

## 네번째 침례

버지니아 에이 트라발리니

내가 두 살이 되던 해까지 나의 유대계 어머니와 이탈리아계 천주교인의 아버지와 나의 동생 그리고 나는 조부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제를 삼고 싶어하지 않은 부모님은 할머니 말씀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13개월 되었을 때 나는 첫번째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을 보스톤의 펜웨이 파크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동생 낸시와 나는 보스톤 교외에 살고 계신 유대인계 외조부모님댁과 이태리인계 조부모님댁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한 주일을 친할머니, 나나와 함께 천

주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에는 외조부모님과 함께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성일에 성전에 갔으며, 유월절과 하누카 (8일간이나 계속되는 유대인의 청궁제전, 수전절)를 지켰습니다.

두 조부모님들은 모두 영어를 잘 하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갖고 계신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종교 교육은 흥미롭기는 하였으나 별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조부모님들이 모두 나의 종교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나의 아버지가 프리 메이슨단에 가입하던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나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친구의 권고를 받아 우리를 모두 영국 성공회에 침례 받고 입교하게 하였습니다.

영국 성공회 교인이 된 후 나는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였으며 청소년 그룹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에서도 나는 역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였으나 그들은 거의 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십대를 나는 여전히 불만 속에서 지냈습니다. 나는 친조부모님댁과 외조부모님댁을 여전히 번갈아다니며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태리계인 친조부모님의 종교를 좀더 깊이 알



아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친주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구를 한 다음에 세번째로 다시 칩레를 받았습니 다. 나는 매주 빠짐 없이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후에 나는 그 교회에서 결혼하였으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그 아이들을 친주교의 신앙으로 키우려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꾸며 보려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 영적인 인도를 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 우리는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북서로 약 30마일 가량 떨어진 조지타운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타주 브리검시티에서 데빌비스라는 한 가족이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나는 그 가족의 이사를 도와 주고 점심에 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내가 가져온 음료수 몇 가지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몰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몰몬이 뭐예요?”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한 번도 몰몬이니 요셉 스미스니, 말일성도니 하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어떤 종교 단체의 본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누가 그 교회에 속하고 있으며 그 교회가 어떠한 종류의 교회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데빌비스씨 부부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원리대로 생활하였

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했으며, 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나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답을 알지 못하면 참고서적이나 잡지에서 찾아 알려 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5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혼 문제가 구체화되는 동안 나의 가족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믿었으며 내가 그와 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참으로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를 반겨 주었으며 그의 집에는 항상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집을 방문하였을 때 나는 데빌비스 부인에게 가정에 사랑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예요!”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부인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의를 했으나 대화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데빌비스 부부는 나의 종교적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긴 하였으나 결코 나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 다.

언젠가 그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을 보낸 후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운 뒤 나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잠을 자면서 내가 데빌비스 가족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꿈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잠을 잤으나 역시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깨었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데빌비스 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나를 데리러 왔으며, 우리 셋은 뉴햄프셔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질문을 모두 하였습니다. 나는 훌륭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데빌비스씨에게 나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그는 캠브리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모르는 걸요”라고 내가 우겼으나 그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려면 그와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브리지의 성찬식에 가서는 선교 본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영장로, 월슨 장로 그리고 블로드케트 장로였는데 모두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이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요...”라고 말하자 세 명의 장로는 다투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3주 후에 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칙례를 받았습니다. 이 칙례는 신권의 권능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강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의 머리를 지배해 오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그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매사추세츠에 있는 동안 나는 그때에 교회에 입교한 훌륭한 사람과 함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

## 나의 공로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씀

칼마 앤 커틀러

**언**젠가 주일학교 분반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에게 물을 먹이는 일에서 주님의 도움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있었다. 전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우리 교사는 때때로 지도자들의 성과에 대하여 지나치게 칭찬을 해 줌으로써 지도자를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할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많은 반원들은 어떻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스테이크 월계반 표준의 밤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부탁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루 종일 여러 차례의 영감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고요한 밤이 되자 나는 낮에 영감으로 주어졌던 것들을 종합하기 시작하였다. 나에게 할 당된 시간에 알맞는 말씀이 준비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갑자기 주제에 관한 말씀과 기사의 많은 자료가 다시 머리



에 떠올랐다.

나는 주님께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자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게 할당된 시간은 30분 뿐인데요.”

그러자 나의 마음에는 분명한 지시가 임했다. “그것을 모두 적은 다음에 큰 소리로 읽으면서 시간을 재보아라.”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대로 하였다. 놀랍게도 꼭 30분이 되었다. 방안을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 기뻐했다. 나는 준비를 다 한 것이다!

그러나 월계반 표준의 밤이 있기 전날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하였다. 다음날 오후에 나는 내 방에 들어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연습해 보려고 하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두려움으로 주님께 말씀드렸다. “모조리 읽어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청중들의 주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에게로 쏠리게 될 텐데요.”

그때 매우 강하게 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원고를 집에 두고 가거라.” 나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없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이 뇌리를 울렸다. “원고를 집에 두고 가거라.”

두려워하면서 나는 간구했다. “제가 초등학교 회장이었을 때 말씀을 하러 나와 섰다가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다시 나는 “원고를 집에 두고 가라”는 영의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저는 당신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해야 됩니다.”

또 다시 원고를 집에 두고 가야 한다는 영의 고요한 음성을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손수건 하나만 갖고 문을 나섰다. 내 창문을 훑듯 바라 보았을 때 정말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예배당에서 다시 말씀을 머리 속으로 연습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안되었다. 나는 다시 두려워했으며, 기도하였다. 그러자 곧 주님이 저기에 계시다는 위로의 확신이 느껴졌다.

시간이 되어 나는 확신을 갖고 언단에 나섰다. 나는 30분간의 말씀을 모두 마쳤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다.

모임이 끝났을 때 여러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넘치는 찬사를 해주었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몇 차례 어색한 말로 더듬대다가는 출입구를 찾았다. 집에 가고만 싶었다. 그 일을 나의 공로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감명을 주는 말씀을 전해 준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한 말은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오늘 저녁 말씀에서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등의 말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이상의 찬사는 오히려 유혹으로 이끌기 쉽다. \*

칼라 엔 커틀러 자매는 6자녀의 어머니요 주부로서 보아스, 아이라호 서 스테이크의 제 23와드에서 골별반 교문으로 봉사하고 있다.

# 가정 생산과 비축에 대하여 가장 빈번히 문의되는 질문





가정 생산 및 비축이 어떻게 교회의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가?

**교**회의 모든 주요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예비 프로그램도 개인과 가족이 중심이 된다. 예비 프로그램의 중심 개념은 위급한 때를 위한 대책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생활 조성인 것이다. 가정 생산은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여섯 가지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도표 참조)

1. 문맹 퇴치 및 교육. 준비된 사람은 읽고, 쓰고, 기본적인 셈을 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경전과 그 밖의 양서를 공부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과 습관을 가족에게 가르친다. 부모와 자녀는 공공 교육 기관과 그 밖의 다른 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직업 및 사회 진출 계획. 모든 가

장은 가장 합당한 직업을 택하여야 하고 알맞는 훈련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 모든 젊은이들은 모두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개인적으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상담을 받아야 한다.

3. 재정 및 자원 관리. 준비된 사람은 재정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십일조를 바치며, 부채를 청산하고, 경제적인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수입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한다.

4. 가정 생산품. 모든 가족은 밭을 가꾸고 바느질을 하고 가사에 필요한 도구를 만듦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생산하여야 한다. 모든 개인과 가족은 가정 통조림법, 냉동법, 식품 건조법 등을 익혀야 하며, 법적으로 허가된 곳에서는 1년간의 식품, 의복, 그리고 가능한 면 연료까지 비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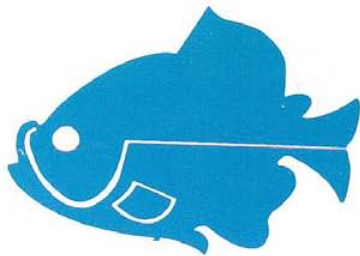
5. 모든 회원은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영양, 신체 단련, 체중 조절, 면역, 공중 위생, 모자 보건, 사고 예방, 구강 보건, 치료 등에 관한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 그 밖에 각 회원은 구급법, 가정 간호 및 식품 선택과 준비 등에 관한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각 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개인적인 기도로써 그와 교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의로운 생활과 자제력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앎으로써 인생에 닥칠 도전과 위험을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 각 가족은 사고적—정서적인 힘은 제시된 가족 생활의 원리를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성장의 결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상의 모든 분야에서 가족을 계획하고 준비시킬 때 각 분야에 대한 큰 힘이 올바르게 균형을 이루며 자라게 될 것이며, 이것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가족은 긴급한 경우를 위하여 준비될 뿐만 아니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현명하게 청지기의 직분을 다하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개인과 가족의 예비 프로그램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자립과 가족의 고결성에 대한 열쇠가 된다.

전면적인 재양이나 경제 침체의 경우 교회는 얼마나 회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는가? 감독의 창고가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는가?

감독의 창고는 항상 평상시의 우리 중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만을 돌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의 창고는 현 상태의 회원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년간의 생필품만을 제공해 준다. 감독의 창고는 교회의 모든 회원의 필요 사항을 보충해 줄 만큼 풍족하지는 못하다.

국부적인 위급 사태인 경우—예로써, 아이다호주 테튼 뱀 사건의 경우—교회 생산—배부제는 감독의 창고를 포함하여 교회의 자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대 재양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의 창고에 있는 생필품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

각 가정이 1년간의 생필품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호경기일 경우에는 복지 사업이 일상적인 생필품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고 복지 사업 자체의 운영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나, 수요가 많이 요구될 때에는 교회 회원과 지도자가 적절한 곡물 및 생필품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회원은 자신이 비축한 식품에 의존해야 한다.

가정 생산 및 비축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교회 회원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있고 다음으로는 가족에게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



다.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정 생산과 비축 면에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1. 자신이 식품을 생산하고 필요한 생활 필수품도 생산한다.

2. 우리가 생산한 것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익힌다.

3. 우리의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든지 올바르게 비축한다. 교회는 적어도 1 년간의 식품, 의류 그리고 가능하면 연료까지 비축할 것을 권고한다. 음료수의 예비도 중요한 것이다. 비축하는 식품은 기본적인 식품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사용한 것은 그 양만큼 채워두어야 한다.

(엔사인, 1976년 5월호, 116-18페이지; 1976년 11월호, 121-22페이지)

4.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근면을 실천하며 낭비를 없앤다.

**1 년간의 생필품을 비축하기 위하여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진 돈이 없다. 그러한 경우 가족을 위한 1 년간의 비축을 위해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하는가?**

아니다. 교회는 비축으로 인하여 부채를 저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처음 실시되었을 때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질병을 퇴치해야 하듯이 부채를 청산해야 합니다. 현재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은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수 없으면 내일 해야 합니다.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고 조금씩이라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대회 보고, 1937년4월, 26페이지.)

이 권고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비축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한 가지의 원리를 따르기 위하여 다른 원리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가족은 수입의 한도 안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본 필수품을 모으도록 계획을 세움으로써 두 가지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 식품 비축을 시작하기 위하여 부채를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김블 대관장의 말씀대로, “에비 프로그램이란 생활의 일부분이지 갑작스레 시작되거나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1976년 10월,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하신 연설)

**왜 1년간의 생필품을 비축하여야 하는가? 교회가 회원을 돌보기 위하여 생산 계획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 생산 계획의 일차적인 목적은 감독의 창고에 식품과 그의 생필품을 조달하여 줌으로써 감독이나 지부장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생필품을 제



공해 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생산 계획은 또한 부모에게 자녀와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나란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것은 시간과 재능을 헌납하고, 서로 나누며, 형제애와 자매애를 키우는 데 훌륭한 기회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은 유희지를 유용한 작업지로 만들 수 있고, 회원에게 위급한 때에 자립심과 독립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해 준다.

교회 생산 사업의 대부분은 농업이다. 즉 농사, 과수원 경작, 낙농 및 치즈 제조업, 축산업, 양봉업, 양계업 등이다. 그밖에 통조림, 제과업 등등이 있다.

교회 회원은 와드와 지부로부터 받은 생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필품의 공급이 계속될 수 있다.

회원은 또한 자발적인 금식 헌금과 그 밖의 복지 기금을 바침으로써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자원을 헌납할 수 있다.

**식량 비축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의 교회 회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소수의 나라에서는 아직도 식량 비축을 금하고 있다. 아직도 문서화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규제의 대부분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식량이 매우 귀하고 저장에 매우 큰 문제가 되었던 전시에 적용되었던 규정들이다. 이러한 경우, 교회 회원과 다른 시민은 이와 같은 법률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합법적이며 적합한 절차를 강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 비축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는 가정 생산을 강조할 수 있다. 가족은 적당한 비식품 생필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가족은 이 일에서 근면과 절약의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은 받을 가꿀 수 있다. 많은 식품을 받게 저장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생물 비축” 방법이다. 식량을 선반에 쌓아 비축하는 것을 금하는 곳에서도, 소, 닭, 염소, 양, 돼지 등을 생축으로 보관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간의 기본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은 위법인 경우에도 이삼 주간의 식품을 비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학생이나 자주 이사를 하는 사람이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식량이나 기타 생필품을 비축하여야 하는가?**

학생들, 제한된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 이사를 자주 하는 사람 아직 안정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복지에 대하여는 우선 개인에게 다음으로는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자신의 필요 사항과 우선 순위를 면밀하게 살려야 한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는 청년반 자매들도 식품 비축 프로그램을 시작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직 학생인 여성에게는 철저한 식품 비축 프로그램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준비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내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예



산을 세우며 저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한두 주간의 식품을 비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물품 구입법을 배워야 합니다. (엔사인, 1977년 3월호, 37페이지)

그러나 학생 부부인 경우나 졸업하여 가정을 꾸렸어도 작은 아파트 생활을 하거나 자주 이사를 해야하는 실정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장소의 제한을 받는 곳에는 곡류, 탈지분류, 설탕 또는 꿀, 소금 등의 기본 식품만을 저장할 수 있다. 벽장, 다락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적당한 저장실을 만들 수 있다. 저장 식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몇 달 간의 식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본질, 소책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한 비축 방법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침대 밑, 책상 밑 등과 같이 이중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식품을 비축한다.
- 2,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영구적”인 저장 장소를 만든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지역을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상적인 방법이 못된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참으로 위급한 시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식량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3, 가능하면 친 부모를 “양부모” 또는 다른 친척에게 식품 비축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위급한 시기에 나누도록 이해를 구한다.

**열대 또는 아열대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열대 지방이나 아열대 지방은 온대 지방의 경우와 다르다. 열대 지방에는 1년 내내 온갖 종류의 과일과 채소가 충족하다. 곡류 대신에 토란, 고구마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그대로 땅속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분유 대신으로 물고기, 양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열대 지방의 높은 기온은 저장 식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므로 식량은 1년 간격이 아니라 몇 개월 간격으로 바꾸어야 한다. 모든 식품은 가능한 한 서늘한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건조 식품은 높은 습도로 인하여 습기를 흡수하기 쉬우니 유의하여야 한다. \*



# 영적인 기근

윌리엄 지 다이어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직후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마을에 있는 대학 와드에 참석하였다. 주일학교 교사는 나와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젊은 청년이었다. 어느 날 그는 군에서 있었던 경험 한 가지를 이야기 해 주었다. 말일성도 군인 모임에 가고 있을 때 그는 함께 자라왔던 말일성도 친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 친구에게 함께 모임에 가자고 청하였다. 친구는 “싫어. 난 이제부터 모임에 안나가기로 했어.”라고 말하였다.

“왜 그러니?”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나갔지 않나? 그런데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 하나, 주일학교 공과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어. 자네,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와 성찬식에 참석했지?” 교사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친구는 이처럼 물었다. “자네 성찬식 말씀이 무엇이었는데 기억하나? 모임에서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나?”

나의 주일학교 교사는, “솔직히 말해서 기억할 수 없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젊은 친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네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왜 교회에 참석하는거야?” 교사의 이러한 이야기에 나는 매우 흥미를 갖고 듣게 되었다. 나 역시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성찬식 말씀과 주일학교 공과를 기억하려 했으나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인가에 큰 기대를 걸면서 들었다. 교사는 그의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말했다. “자네 매일 세 끼씩 식사를 하지?”

“물론이지.”

“지금까지 늘 식사를 해 왔어. 자네, 지난 주에 먹은 음식을 모두 기억할 수 있나?”

“아니.”

“지난 일요일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왜 식사를 하나? 자네가 먹은 음식을 기억할 수도 없는데 왜 매일 식사를 하나?”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야 물론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니까 먹는 거지.” 주일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바로 그거야. 내가 교회 모임에 가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란 말이야. 우리의 영적인 자신, 영혼도 어느 정도의 영적인 음식을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가 그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굶어 죽게 돼. 나는 그런 경험을 맛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는 걸세.”

\*





2/12  
1931